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폐막된 제2회 임실N치즈축제에 지역민을 비롯한 관광객 21만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관광소비 및 투자를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실N치즈축제 '잘 마쳤다'

경제적 파급효과 200억원... 지역민과 함께 한 축제 준비 효과 '톡톡'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조기춘)에 따르면 "지난 9일 폐막된 제2회 임실N치즈축제에 지역민을 비롯한 관광객 21만 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관광소비 및 투자를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성황리에 축제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관광객 만족도, 타 축제와의 차별성, 축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광객을 맞이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지역민들과 함께 준비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축제

올해 임실N치즈축제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임실치즈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창작초연 뮤지컬 '치즈로 만든 무지개', 아름다운 삼진강이 돌아 흐르는 강변사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동자비위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마당극, 둔대기 마을학교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진행한 다들 이 공연,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에

게 안내를 비롯하여 임실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걸어 다니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한 안내관 등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축제가 더욱 빛을 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축제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지역 및 지역축제를 알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안내관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 독자성 있고 테마가 뚜렷한 축제

임실N치즈축제는 지역의 대표특산물인 '치즈'를 활용하여 임실지역만의 독자성 있고 테마가 뚜렷한 차별화된 축제이자 치즈를 보고, 만들고, 맛보고, 만지고 배우는 오감(五感)만족형 체험 축제로서 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또한 축제장에 치즈유제품 판매 코너를 마련하고 합인판매를 통한 마케팅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 더욱 풍성하고 알찬 콘텐츠로 재구성

이번 축제는 공연, 체험, 공연, 전시 등 6개 분야 60개의 풍성하고 알찬 콘텐츠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다. 특히, 임실치즈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는 관광객 참여행사로 '1967! 치즈 떡볶이 나눔행사', '1967! 토끼피자 피자 만들기'와 임실치즈와 임실고추로 만든 고추장을 이용하여 주먹밥을 채우는 모자이크 형식으로 한우 모형을 완성하는 '임실N치즈&한우 모자이크' 등 대규모 이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하여 바람의 언덕 주변에 금년도에 새롭게 선보인 슬라이딩 타기를 비롯하여 유기축산, 연날리기, 치즈 만들기, 잔디밭메타기 등에 많은 인파가 몰려 어린이

를 위한 세심한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임실군은 금년도 임실N치즈축제의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평가를 통해 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했던 점과 축제 진행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관광객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칠산장어횃집 대상 수상

전북음식문화대전서 풍천장어구이로 수여

도내 최고의 맛 경연대회인 '제11회 전북음식문화대전'에서 고창군 해리면 '칠산장어횃집(대표 하점수)'이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음식문화대전 중 향토음식경연대회에 4곳의 일반 음식점이 참여해 해리면 '칠산장어횃집'이 '풍천장어구이'로 영예의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상장을 수여했다.

대상을 차지한 하점수 대표는 "실력 있는 경연자들이 많았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풍천장어가 최고의 향토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1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김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됐으며 전통과 향토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북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매년 열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보건소, 병원 진료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연휴를 이용한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병원 진료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력이란 최근 1~2개월 이내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을 뜻하며 올해 해외에서 추석연휴를 보낸 출국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61만 3천 여 명으로 사상 최대 수치를 나타내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여행 중에는 낯선 환경과 기후 변화, 여행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면역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특히 특정 풍토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풍토병에 걸릴 경우 현지인보다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많이 유입되고 있는 감염병으로는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이 있어 위험지역을 여행한 후라면 증상에 유의해야하며 또한 지난 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중동 지역의 메르스와 남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해외여행 후 의뢰기관 및 보건소 진료 시 의사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야 감염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환자 본인의안전은 물론 지역사회로의 전파도 차단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장터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11일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장터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만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를 비롯해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임실 시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군 보건의료원은 각종 합병증,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및 암까지 유발하는 비만 예방을 위해 '체지방 바로 알기', '체지방 측정' 등을 실시했다.

또한, 금성질환 및 기타 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건강생활실천 홍보(금연, 절주, 영양, 운동, 비만)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올바른 이슬질 교육, 자살에



방 및 생명사랑지킴이 서명운동을 병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지 토양검정 실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10월부터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농가 중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11개 읍면의 논토양 403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등 3개 항목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검정 방법은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을 따르며, 지속가능한 토양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비료사용처방서로 농업인에게 발급할 계획

이다. 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성분 중 2개성분 이상이 기준함량을 초과할 경우 비료사용지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무분별한 비료사용을 지양하고, 적당시비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을 통해 불균형한 시비 등을 없애고, 안전농산물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양관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철 기자

지역특이사항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운영행정위원회는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실엔지니어·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된다.

특히, 12일과 13일은 군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해법을 강구하는 군정질문도 함께 진행된다.

문영두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실N치즈축제가 뜻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준 심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절도예방 방법활동 호평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순화파출소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방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다른 지역 사찰안에서 문화재 도난사건과 농·축산물 절도사건 발생이 빈번하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법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정밀 방법진단을 실시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목 검문을 강화하여 농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검색을 실시하고, 관내 사찰(암자)을 직접 방문하여 요일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선정하여 집중순찰을 전개하고 있다.

인계면에 위치한 송화사 주지스님은 사찰이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시정장치를 점검하고 사찰을 비울 때 미리 연락을 달라는 등 정밀 방법진단과 신고요령 등을 설명해주시니 심리적으로 안전한 느낌을 받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인규 순화파출소장은 "농·축산물 절도는 농촌지역 경제약화의 대표적원인 해 방되고 사찰 문화재 도난은 국가적인 손실이므로 선제적인 예방과 반복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체감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철 기자

순창군,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속화

초수급자 · 소외계층 등 서민층 545가구 대상... 금속배관 · 퓨즈콕 등 교체

순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군민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한 순창만들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군은 최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경로당 등 서민층 545가구에 대하여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 1억 2천 5백여만원을 투입했으며 그동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LPG가스 배관을 교체하지 못한 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생활편의 증진을 물론 가스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줬다.

군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동 추진해 효율성을 높였다.

또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 않도록 각 가정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 직원은 물론 이장들과도 협조해 대상자 선정에도 공을 들였다.

군은 올해 사업 마무리와 더불어 최근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LPG가스



순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군민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한 순창만들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사용가구 중 사업수혜를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군은 올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군은 LPG가스관 교체공사 외에도 서민층 230가구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를 설치하여 군민 안전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특히 가스 잠금을 잊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

최근에는 2억 7천여만원을 투입해 경로당 조명을 LED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왕철 기자

/남원=유영철 기자